

시대분별_Timing II.

형식이 아니라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1.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1) 영향력

교회는 세상속에 있다. 성도는 세상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향을 주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일이다. 성도는 날마다 세상속에서 이에 대한 도전 앞에 서있다.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에대한 진지한 질문과 답이 오늘의 '나'라는 존재를 설명해줄 수 있다.

(2) 땅에 대한 잘못된 해석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변화하는 세상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이분법적인 사고'이다. 즉,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세계관이다. 이 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대립적 구조'로 파악한다. 이런 신앙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심판' 받을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지금(now)'이 아니라 후일의 일로 생각한다.

이런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만족할 수 있겠는가? 결국 심판 받을 세상인데, 굳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의 대상으로 본다. 이런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문제가 가득하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고민하지 않는다. 결국 죽어서 천국가면 끝나는 일인데 현실에 최선을 다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성경의 뉘앙스는 전혀 다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보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에베소서 1:9-10]

9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10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3) 인간이라는 존재

성경은 이 땅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물로 본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셨다. 인간들에게 권한을 주셨다. 땅을 향한 성경의 뉘앙스는 분명하다. 하늘과 같은 원리가 이 땅에서도 인간을 통해 적용되기를 바라셨다.

[창세기 1:26-28]

26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다(26절). 이에 대한 증거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같은 의미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의미란 존재의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만물이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았다. 의미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있는 존재란? 복 있는 존재를 말한다. (28절 ‘복을 베푸셨다’) 가장 행복한 존재, 온전한 존재인 것이다. 그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이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셨다.

이러한 상태가 ‘문화’이다. 문화란? 의미와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단계이다. 또한 삶의 방식을 말한다. 삶에 필요한 어떤 가치가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문화에는 ‘정신, 원리’가 있다. 이 원리에 맞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 원리대로 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4) 인간 - 영향력을 주는 존재, 문화를 만들어가는 존재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은 이 땅에 ‘영향력’을 주는 존재이다. 더 나아가 이 땅의 삶의 형태와 방식을 문화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영향력은 ‘문화’를 말한다. 어떤 일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나 단체를 생각해보라. 그 영향력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영향을 받고,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에대한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삶’이다.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종교적인 삶과 달랐다. 예수님의 ‘삶’에는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로 가득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가치-팔복’ 이었다. 그 가치로 사는 삶의 풍성함을 직접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회복, 기쁨, 사랑, 변화들이 가득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열두제자 였다.

결국 예수님이 승천 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보여지는 어떤 기적이나 업적이 아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나 업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문화를 강조하셨다. 그 문화를 일으킬 사람을 열두명을 남기셨다.

(5) 영향력을 주는 교회

이 열두명은 교회가 되었다. 공동체가 되었다. 초대교회는 세상속에 있었고, 세상속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에 기록한 초대교회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다.

[사도행전 2:46-47]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은 세상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태도였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늘의 가치를 실천했다. 하늘의 가치와 원리는 무엇인가? 모임 자체인가? 떡을 떼는일 자체인가? 그렇지 않다. 모임과 떡을 떼는 것은 행위일 뿐이다. 하늘의 가치는 ‘기쁨, 섬김, 나눔, 사랑 등’의 가치이다. 그들은 하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땅에서 떡을 떼는 일로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 그들은 창세기 1장에 기록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인식했다. 이런 인식은 세상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문화’를 일으켰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있었다. 이런 영향력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성경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문장으로 그 상황을 설명한다. 무슨 말인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런 영향력은 영혼구원에 대한 실제적 영적사역으로 나타났다.

초대교회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값싼 구원의 개념과 같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들의 구원은 ‘죄’가 해결된 영적인 구원이며, ‘생각과 정서’가 변하는 구원이며,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나는 ‘땅’의 구원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도 하늘을 경험하며 살았다. 영적원리를 알고 있었다. 그 원리는 세상속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하늘의 통치의 도구가 되었다.

2.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냥 살도록 두셨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하늘의 복의 원리를 알고 있는 존재들이며, 그 원리로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세상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구하라고 요청하신다.

[야고보서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는 사람 또한 실족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 맞는 대안을 주신다.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다. 대표적으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지혜'이다.

지혜는 무엇인가? 하늘의 원리가 이 땅의 경험과 만나 나타나는 실제적인 대안이다.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지혜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을 보게 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 지혜는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세상에 영향을 주었던 하늘의 능력이다.

3. 하나님의 영 - 다윗

[이사야 11:1-3]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자가 바로 다윗이다(1절-이새의 줄기).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다.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등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다)

다윗은 하늘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 하늘의 원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원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종교적 형식을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영은 형태가 없는 것이다. 본질이다. 원리이다. 생명이다. 그러므로 영은 형태를 복사하는 일이 아니다. 적용에 관한 문제이며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대한 좋은 예로 주님은 마태복음 6:33절을 말씀 하셨다.

[마태복음 6:33]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이 말씀에 기록된 영적원리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존재이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하여 약속하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다. 초자연적인 하늘의 역사는 이 땅에서 나타난다. 각 영역에 이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4. 하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적의 삶에 접근하라.

5. 형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의미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아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의미있는 존재였다.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모든 피조물이 아담으로 인해 가치있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속에서 회복해야 할 능력은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안에 회복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창세기 2: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6.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은 ‘소유’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소유’에 의미를 주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다.

세상은 소유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존재로 인해 소유가 의미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